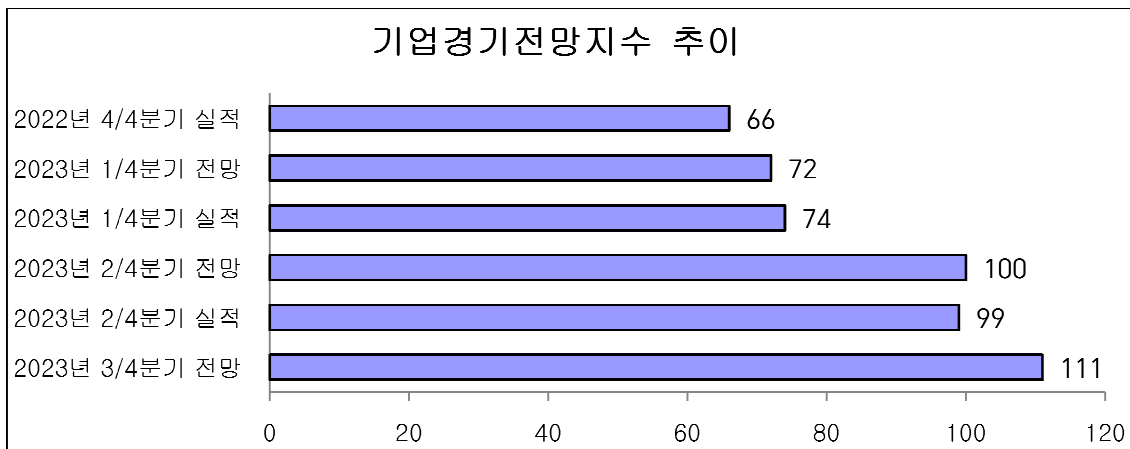
 영주상공회의소 調査結果	2023년 3/4분기 기업경기전망 조사
경제사업부 054)632-8830	관내 30개 제조업체 조사 결과

영주상공회의소(회장 조관섭)는 최근 관내 30여개 제조업체를 표본대상으로 2023년도 3/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 : Business Survey Index)를 조사한 결과, 직전 분기보다 '11' 포인트 증가한 '111' 로 집계됐다. 실적추정치는 전 분기보다 '25' 포인트 증가하였다.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기업들의 현장 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0 ~ 200 사이로 표시되며, 100을 넘으면 이번 분기 경기가 전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부문별 기업경기전망지수 추이

	2022년 4/4분기 실적	2023년 1/4분기 전망	2023년 1/4분기 실적	2023년 2/4분기 전망	2023년 2/4분기 실적	2023년 3/4분기 전망
체감경기	48	63	74	111	100	111
매출액	59	63	70	104	111	119
영업이익	52	63	74	96	100	107
설비투자	89	85	96	96	100	111
공급망 안정성	67	70	70	93	85	111
공장가동 여건	81	85	59	100	96	104

2023년 3/4분기 기업경기 전망 지수를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체감경기 111, 매출액 119, 영업이익 107, 설비투자 111, 공급망 안정성 111, 사업장·공장 가동 여건 104 로 나타나 체감 경기는 2/4분기와 동일한 값을 나타냈다. 이를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2023년 2/4분기보다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경기 상황 속에 금년 상반기 실적(영업이익)이 올해 초 계획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 묻는 항목에 ‘소폭미달(10% 이내)’ 이 48.15%로 가장 높았고, ‘목표수준 달성’ (25.93%), ‘소폭 초과달성(10% 이내)’ (14.81%), ‘크게 미달’ (11.11%)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경영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국내외 요인을 묻는 항목에 ‘내수시장 경기’ 가 51.61% 로 응답의 과반수를 차지했다. ‘수출시장 경기’ 와 ‘원자재가격’ 은 19.35% 로 동일한 응답값이 나왔다.

2023년 하반기 사업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대내외 리스크 2가지를 선택하는 항목에 ‘내수소비 둔화’ (32.0%), ‘高물가 원자재가 지속’ (30.0%) 로 응답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다음 순서로는 ‘수출부진 지속’ 과 ‘高금리 상황 지속’ 이었는데, 12.0% 로 결과가 같았다. 소수의 의견은 ‘원부자재 수급 차질’ (8.0%), ‘규제입법 등 정책이슈’ (4.0%), ‘高환율 상황 지속’ (2.0%) 순으로 나타났다.

- 조사기간 : 2023. 5. 31 ~ 6. 13 (휴일제외 9일 동안)
- 조사대상 : 영주상공회의소 관내 제조업체
- 조사방법 : 전화, FAX
- BSI의 기준치는 100. 100 초과는 호전예상업체가 악화예상업체보다 많음을 의미.
100미만일 때는 반대임
- BSI 지수=[(호전예상업체수-악화예상업체수)÷ 전체응답업체수] × 100 + 100
- BSI전망치는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치임